

상수리 포트 양묘법

한국양묘협회 충북지부 金 聖 演

□ 시설양묘

시설양묘란 외국에서는 콘테이너 양묘라고 하는데 이는 비닐하우스내에서 포트에 씨를 뿌린후 기계를 이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며 묘목이 가장 잘 자랄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어 짧은 기간 내에 양질의 묘목을 생산해서 계절에 제한받지 않고 나무를 심을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장점을 살펴보면

- 가. 뿌리 발달이 좋은 우량 전묘를 생산
- 나. 종자대 및 인건비를 절약
- 다. 굴취 및 가식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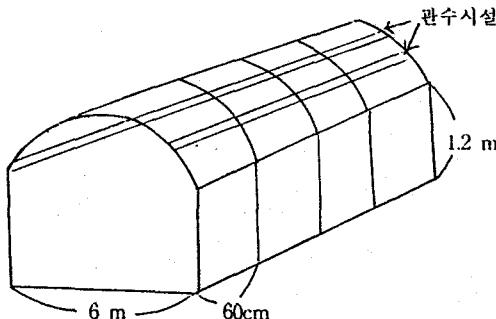
단점으로는

- 가. 처음 시설비 투자가 많이 들고
- 나. 포트용 흙이 필요하다

1. 자재

1) 하우스

- 아연 도금한 철재 파이프를 다음 그림과 같이 반월형으로 만들고 비닐은 장수비닐로 덮으면 2-3년을 유지할 수 있고, 비닐위에 50% 차광망을 한겹 덮는다.



- 하우스 바닥은 평평하게 잘 고른후 비닐을 깐다. 너무 얇은 비닐은 잡초나 돌 등에 뜰릴 염려가 있다.

2) 관수시설

시설양묘에서 물주기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외부기온이 25°C 이상 오르면 매일 한차례씩 관수를 해 주어야 하며 여름철에 2일정도만 관수하지 않으면 잎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관수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관수시설은 스프레이 스프링쿨러나 물방울이 안개처럼 가는 미스트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저렴한 스프링쿨러는 폭6m 하우스에서는 두줄로 설치하고 노즐 간격은 1m씩으로 한다.

3) 양묘용 용기

시설양묘에서는 비닐포트, 종이포트, 스치로프포트등이 있으나 이중에서 종이포트와 비닐포트를 사용하였다.

종이포트(종이컵) 규격은 폭이 7.5cm 높이 9cm이며 비닐포트는 폭이 9cm 높이 9cm 크기를 사용하였다.

4) 포트용 흙

흙 대용으로 쓸수 있는 재료에는 퍼트, 분쇄수피, 퍼라이트등이 있으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는모래 마사흙에 믹스상토를 혼합해서 사용했다.

2. 양묘법

1) 종자

3월 23일 상수리종자를 수침 2일이 지난후 노천매장을 실시함.

2) 포트 흙 채우기

1차 - 4월 19일 가는모래마사 1경운기에 믹스상토(상품명 : 바이오골드)1포를 혼합하여 종이컵에 채우며 매장해서 발아된 종자를 한개씩 넣고 흙은 1cm정도 덮는다.

2차 - 4월 29일 1차와 같은 방법으로 혼합하여 비닐포트에 파종함.

3) 하우스 바닥에 포트 놓기

폭 6m의 하우스에 5줄로 바닥에 비닐을 깔아준후 비닐위에 포트를 줄지어 늘어놓은후 물을 스프링쿨러로 흠뻑 살포해준다.

4) 물주기 및 관리

물은 5월 25일경까지는 2-3일에 한 번씩 흡떡 살포해 주고 그 이후로는 매일 한 번씩 살포해 주며 외부온도가 약 27-28°C 이상이 되면 하우스 양옆을 열어서 통풍을 시켜 묘목이 타지 않도록 해준다.

시비는 6월 19일, 30일 묘목 19,000본에 1회당 유안 5kg을 시비하고 물을 살포한다.

3. 생육상황

구 분	간 장	구 분	구 분
종이컵(7.5×9)	23 cm	3.0 mm	4월 19일
비닐컵(9×9)	29 cm	3.5 mm	4월 29일

4. 맷는말

시설양묘를 실시함에 시업규정에 따른 용기묘목의 규격이 필요하고 시설비가 일반양묘보다 과다하므로 정부지원이나 묘목대 가격산출에 특별 배려가 있어야하며 더많은 연구가 필요하다.